

제3세계 영화사- 3강 역사 영화의 마지막 대안, 아프리카 영화

▶ 대안영화

비슷한 말 : 대항 영화, 열린 영화, 다른 영화.

<-> (체제) 지배영화

cf. 독립영화와 대안영화는 다른 것 (독립영화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음)

▶ 아프리카 영화

* 제 3세계 영화 후발주자로 탄생(1980년대부터)

아프리카 영화에는 아프리카 특유의 전통 민족성이 내재되어 있음(민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주제를 잘 드러냄 . 가난과 착취, 서구화의 모습을 비판

* 남미 영화의 차이?

남미는 투쟁적이고 정치적이고 전복적인 제 3세계 영화가 많음. 아프리카는 인간(보편성에 호소(민족 정체성 회복, 원시림 미덕 회복).

* 영화적 성취도에 따른 분류

-프랑코폰 국가 (프랑스어 쓰는 프랑스 식민지 아프리카 국가) : 세네갈, 말리등

-앵글로폰 국가 (영미권 식민지 출신 국가) :남아공

영화적으로 앞서 간 나라들은 프랑코폰 국가들.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하면서 발전)

▶영화

1. 영화의 강국 세네갈과 우스만 셈벤 감독

* 보롬 사례 (1963): 첫 아프리카 영화, 한국말로 제목을 번역하면 마부라는 뜻
세네갈 원주민의 애환. 식민 이후, 서구화된 세네갈인이(상류층)과 세네갈인(하류층)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흑인 내부에서의 갈등.

* 블랙걸(1966)

프랑스 파리에 가정부로 간 세네갈 여성이 고생하다가 자살을 한다는 내용. 가정부를 노예 취급하는 프랑스 중산층 여자에게 박대 받고, 자유가 박탈된 세네갈 여성이 결국 그 상황을 못 견뎌 자살을 함.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갈의 열등의식을 드러내고 백인의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묘사.

* 환전(1968)

전근대적인 사람인 마을의 족장이 주인공. 첩을 여럿 두고 있고 게으름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인공의 어려움을 보여줌. 세네갈 공무원 사회는 이미 근대화 되었는데, 아직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봉건질서를 고수하려는 상층부의 모습을 풍자함.

* 세도(1977)

같은 민족인 세네갈인의 모순 지적.

세도는 개종을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를 일컫는 세네갈 율로프말.

영화 속에서 세네갈 사람들은 왕이 지배하는 마을에서 세네갈 왕을 비롯한 카톨릭 성직자, 기독교 성직자, 백인상인들을 몰아내고 회교도로 개종시키려 한다. 살아남은 공주가 다시 회교지도자를 죽이고 미래를 새로 모색한다.

세네갈인 80%가 신봉하는 종교이지만 역시 외세종교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것.

* 보호 (2004)

소녀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마을이 등장. 그 소녀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나옴.

근대 이후, 아프리카의 봉건적 질서에 대한 도전적인 작품. 세네갈의 미래가 남성에게서 뿐 아니라 여성 해방에도 있음을 보여줌 (세도에서의 공주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 가능)

2. 말리 감독 솔레이만 시세

정서적이고 영적인 민족 영화

* 광채(1987)

영화 주인공은 마법사 아버지와 대항하는 초능력자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제거해야만 t자신의 능력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와 주술 싸움을 벌이게 됨.

-아프리카는 아직 신화, 주술의 세계.

-말리의 민족적 정체성이 합리주의가 아닌 전통과 상징속에 존재함을 영화적으로 확립

3. 알제리 민족해방과 알제리 전투

* 알제리 전투(1966)

(감독: 이태리의 질로 폰테코르보 감독. 엄연히 알제리 영화는 아니지만, 알제리 투쟁에서 해방이 갖는 지니는 의미를 잘 그려냄)

테러리즘(민족주의)으로 상징되는 무장투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테러 찬반 양론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반식민주의 영화만은 아님을 보여줌.

4. 에티오피아의 근본적 질문, 하일레 게리마 감독의 추수

* 추수 3000년(1974)

에티오피아 근대를 다루고 있고, 지주의 밑에서 일하는 흑인 가족의 노예 상태를 그려냄. 이런 상황이 3000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걸 강조. 집단기억(노예 시절)을 일깨움.

